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오일쇼크 충격파... 한국경제 '골병'



배달·포장용기 대란 오나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막혀 포장 배달 용기 등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방산시장에 배달 용기가 진열돼 있다.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 공급 차질이 누적되면 납기 지연과 함께 생산 중단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나 기자

유통·식품사 흔들리는 불확실성 너도나도 성장전략 새판짜기

글로벌 사업 확장·조직 혁신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대비

유통·식품 기업들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확장과 사업 혁신을 통해 성장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먼저 삼양식품은 브랜드 다각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동찬 대표는 기존 '달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규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과 글로벌 컵 파스타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자싱 공장 건설과 함께 미국·유럽·중동 등 권역별 확장 전략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환 대표는 북미·유럽을 비롯해 인도·중동,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테라메이크업 등 성장 카테고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경영을 통해 마케팅 효율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김상준 대표는 스킨케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화장품 매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존 색조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점포 경쟁력 강화와 신규 출점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현대백화점은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신규 출점을 이어간다.

이마트는 본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채양 대표는 상품 경쟁력 강화, 점포 혁신, 채널 다각화를 3대 축으로 제시하며 자체브랜드(PL)와 초저가 상품 비중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확장과 사업 다각화, 디지털 전환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면서, 각 사의 사업 구조에 맞춘 전략적 선택을 병행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외형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진 만큼, 상품과 점포, 채널 전반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올해는 각 기업의 전략 실행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美·이란 전쟁 한달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유가 폭락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붕괴 대란 국내 휘발유, L당 2000원 시대 발전·운송산업 등 전방위 타격 기업심리지수 한달 만에 급락

美·이란 전쟁 한달 주요 일지

- | 날짜 | 주요 일지 |
|--------|--|
| 2월 28일 | 이스라엘, 이란에 미사일 공격 단행 발표. 트럼프, 이란 내 중대 전투 시작 발표 |
| 3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메드알리 라흐마네이 사담 발표 |
| 3월 2일 | 호르무즈 해협서 민간 선박 3척 피격 등 공세 확대 |
| 3월 3일 |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습 및 이란 지하 핵시설 '민자대해' 타격 |
| 3월 6일 |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드론 미사일 피격 등 주변 걸프국 잇단 피해 |
| 3월 8일 | 이스라엘, 이란 연료저장시설 집중 타격.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모흐타바 하메네이 선출 |
| 3월 9일 | 바레인, 이란 공격에 따른 정유시설 화재로 '불가항력' 선언 |
| 3월 10일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 미 언론 보도 |
| 3월 11일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4척 공격 국제에너지기구, 사상 최대 규모 4억 배럴 전력비축용 방출 결정 |
| 3월 13일 | 트럼프, 트루소스에 이란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 공격 사실 발표 |
| 3월 14일 | 트럼프,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5개국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 |
| 3월 17일 |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 알리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제거 발표 |
| 3월 18일 | 이란 최대 가스선 사우스파르스 및 아살루에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 미사일 피격 |
| 3월 20일 | 이란, 인도양 다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
| 3월 21일 | 트럼프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진소 초동화' |
| 3월 22일 | 이란 중앙군사본부 '이란 발진소 겨냥한 미국 위협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
| 3월 23일 | 트럼프 '이란 발진소 및 에너지시설 군사적 공격 5일만 유예하도록 지시' 발표 |
| 3월 24일 | 미국, 파키스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 담은 종전 제안서 전달 카타르, 한국 등 4개국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
| 3월 28일 | 미국-이란 전쟁 한달 |

미국이 2월28일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 째에 접어들었다. 개전 초기 미국 정부는 수뇌부 타격을 통한 빠른 종전을 기대했으나 이란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지속 기간을 4주로 예상했으나 이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 및 화물선 통과를 막으면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 배럴당 60달러대에 형성되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랐다. 일시적으로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서기도 했다.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 또한 전쟁 발발 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배럴당 130달러에 거래되며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여파를 정면으로 얻어맞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28일 기준 전국 L당 휘발유 가격은 1693원이었고 서울 L당 가격은 1750원이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3월9일 기준 전국 L당 휘발유 가격 1903원에 서울 휘발유 가격 1950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산업통상

부가 발표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이 27일부터 적용되면서 27일 기준 전국 L당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17원 올랐고 서울 L당 휘발유 가격은 26원 올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 외에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기업에게도 비용 부담을 늘리게 된다.

화물차 연료비와 항공유 가격에 더해 선박 운송 연료비 또한 오르며 산업 발전 연료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그만큼 연료 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저의 기름을 뿌리는 수준으로 쓰는데 그 기름 가격이 오르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간다"고 말했다.

여기에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연료인 나프타 공급이 되지 않으며 정부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실제로 미국-이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기업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조사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3월 102.7에서 4월 85.1로 하락했다. 한경협 BSI는 3월 48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위로 올라왔으나 한 달 만에 급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4월 전산업 전망치는 전월 대비 4.5p 감소한 93.1이었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3월 98.9에서 4월 95.9로 떨어졌고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6.8에서 91.2로 떨어졌다.

이후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문 수출 호조와 조업 일수 증가 등에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부(富)와 명성의 계보를 잇는 연결,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성공한 이들의 곁에는 항상 그들을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의 지도 명사 팬클럽'에서 당신만의 멘토를 만나고 그들의 성공 철학을 직접 흡수하십시오

단순한 팬덤을 넘어 성공의 파트너가 되는 길,
지금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명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